韓·中·日 農外所得構造와 成長分析

李 容 晩
責任硏究員, 農村開發硏究室
李 廣 遠
責任硏究員, 資源經濟硏究室

Ⅰ. 序　論
Ⅱ. 農外所得 評價方法의 比較
Ⅲ. 農外所得構造와 成長分析
Ⅳ. 結　論

Ⅰ. 序　論

1970년대에 들어와 우리 나라의 農家所得은 크게 成長하였다. 그러나 70년대의 農家所得은 쌀 多收穫 品種의 보급과 米穀收買 및 價格支持 政策에 의한 農業所得의 증가에 힘 입은 바 크다.

최근에는 이러한 지속적인 農業所得의 成長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農外所得增大 方案에 政策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 나라의 農家所得 構造는 아직도 農業所得에 크게 의존하는 전형적인 農家所得 構造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 實質 農家所得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農家所得 成長은 불안정하며 都農間의 所得格差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農家階層 間의 所得格差 또한 확대되고 있어서 所得分配上에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

우리 나라 農業與件과 비슷한 日本이나 臺灣의 農家들이 높은 所得水準을 유지하고 農家階層間의 所得分配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은 農外所得成長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이이다.

農外所得增大 문제를 다루면서 農業與件이 비슷한 조건[1]하의 韓國, 中國[2], 日本 間의 農外所得 構造를 자주 비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우리 나라에는 中國(이하 臺灣이라 칭함)의 農外所得 統計資料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삼국간 農外所得 構造 및 成長에 관한 比較分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資料利用에 많은 제약을 주어왔다.

國際間의 農外所得 비교는 農外所得 構成項目과 計算方法에 관한 사전 검토없이 비교할 때는 자칫 오류를 범하기 쉽다. 韓國, 日本, 臺灣 間의 農外所得 계산방법이나 構成項目에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臺灣의 경우에는 2개 기관에서 農外所得 統計를 발표[3]하고 있어 評價方法 등 각국 農外所得統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本稿는 이러한 國際間의 現狀比較에 잘못을 가져오기 쉬운 農外所得 評價方法을 比較 分析하고, 각기 다른 經濟成長과 農業政策에 따른 農外所得 構造와 成長의 추이를 比較 分析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 統計資料와 각국의 農外所得

에 관한 文獻을 주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資料利用과 深層的인 분석에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Ⅱ. 農外所得 評價方法의 比較

農外所得의 개념을 農家 家口員이 農業以外 部門의 經濟活動을 통하여 얻어지는 所得으로 보는 점에는 韓, 日, 臺灣 間에 큰 차이가 없으나, 農外所得과 관련된 用語나 計算方法 항목의 구성에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農外所得과 관련된 用語

農外所得은 兼業收入(所得)과 事業以外 收入(所得)으로 크게 구분되고 있으나 이들 用語의 사용에는 韓, 日 臺灣間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兼業收入이란 용어는 臺灣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日本은 겸업수입을 農外事業 收入이라고 하고 있다. 事業以外 收入이란 용어는 日本의 경우 우리 나라와 같은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臺灣에서는 事業以外 收入이라는 用語는 쓰지 않고 勞賃俸給收入, 財産利用 收入, 補助 收入, 기타 收入으로 細分하여 사용하고 있다[4].

이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 있어서 兼業收入이라는 用語의 사용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가 검토되어 질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兼業이라는 말은 農業과 독립적인 業種, 즉 商業과 工業 등을 農家가 併行하는 것을 의미(經濟學辭典, 1962, p. 402)한다. 兼業農家란 農家에서 家口員이 돈벌이를 위해 農業以外 분야에서 年間 30일 이상 종사하는 것(農水産部, 1970, p. 11)을 의미하고 있다. 겸업농가 개념에는 自營兼業과 農外就業活動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 兼業이라는 말과 兼業農家라는 말과는 用語上에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日本의 경우 兼業收入이라고 할 때는 農外自營事業 收入(商業, 工業 等)과 農外就業收入까지를 모두 포함시키고 있어서(日本農業百科辭典, 1978) 국제간의 兼業收入의 구분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兼業收入을 農外自營收入과 農外就業 收入과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서 우리 나라에서도 兼業收入을 農外事業 收入으로 개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2. 農外所得의 評價方法

韓, 日, 臺灣 間의 農外所得 비교에는 各國의 農外所得 評價方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韓, 日, 臺灣의 農外所得 計算方法을 비교해 보면 兼業所得의 計算方法에는 3국 간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事業以外 所得의 計算에는 3국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韓國의 경우에는 事業以外 所得을 收入개념(事業以外 支出의 不控除)으로 그대로 쓰고 있으나, 日本이나 臺灣의 경우에는 事業以外 收入에서 事業以外支出을 공제한 값으로 사용하고 있다.

表 1 農外所得 算出方法 比較

韓國,	農外所得=兼業所得+事業以外收入 兼業所得=兼業收入−兼業支出
日本, 臺灣,	農外所得=兼業所得+事業以外 所得 兼業所得=兼業收入−兼業支出 事業以外 所得=事業以外 收入−事業以外 支出

〈表 2〉는 韓, 日, 臺灣의 農外所得 計算方法을 비교한 것이다.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日本은 事業以外 收入에서 通勤費, 農外雜支出, 負債利子 등을 공제하고 있다. 臺灣의 경우에도 事業以外 支出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는 없

表 2 農外所得 計算方法 比較, 1978, 全國平均

區分		韓國	日本	臺灣
收入	兼業收入	121.3千원	381.8千圓	61.2千元
	事業以外收入	484.6	2,914.7	40.2
	小計 (A)	605.9	3,296.5	101.4
支出	兼業支出	77.4	137.8	3.1*
	事業以外支出: 通勤費	—	8.8	
	事業以外支出: 農外雜支出	—	14.3	
	事業以外支出: 負債利子	—	61.2	
	小計 (B)	77.4	222.1	3.1
農外所得(A−B)		528.5	3,074.4	98.4

* 臺灣의 경우 農外事業支出은 項目別區分은 統計에 細分되어 있지 않으나 支出項目은 다음과 같다.
가. 勞賃, 俸給支出 ; 通勤費 및 雜支出, 所有工具支出費.
나. 財產利用支出 ; 土地賃貸稅, 修繕維持費, 減價償却費.
다. 其他支出 ; 財產利用, 勞賃등에 속하지 않은 일체의 非農業支出.

資料 ; 韓國 : 農水產部, 「農家經濟調査結果報告」, 1979.
日本 : 農林水產省, 「農家經濟調査報告」, 1979.
臺灣 : 臺灣省, 「農家記帳報告」, 1978.

지만 分析過程에서 農外就業을 위한 通勤費, 農外就業用 工具費와 財產利用 收入을 위한 修繕維持費 등 事業以外 支出을 공제해 주고 있다.

農外所得 構成項目에도 이들 3국 間에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表 3〉. 農外所得 가운데 兼業收入 構成項目을 보면, 商工鑛業, 서비스業, 其他收入은 韓, 日, 臺灣이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林業, 水產業 收入은 韓, 日 두나라는 겸업수입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臺灣은 林業, 水產業 收入중 自家生產이나 法定生產地域에서 收入되는 것은 農業收入의 養魚, 山林收入에 포함시키고 있고, 天然採集(藥草, 土蜂, 土石 등)收入은 事業以外의 其他 收入에 포함시키고 있다. 大動物 增殖收入은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大動物이 農家副業用으로 사용된 비율 만큼은 兼業收入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日本이나 臺灣에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서비스 收入은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일반 서비스업과 農業 서비스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日本, 臺灣은 구분

表 3 兼業收入 構成項目의 比較

項目	韓國	日本	臺灣	備考
林業	○	○	—	臺灣은 農業所得에 包含
水產業	○	○	—	
大動物增殖	○	—	—	韓國만 包含
商工鑛業	○	○	○	
서비스業 (農業및產業)	○	○	○	
其他	○	○	○	

없이 日本에서는 農作業 委託收入이라 하여 商工鑛業에 포함시키고 있고, 臺灣은 임시 또는 수시로 고용되는 收入과 業務代行 수고료, 수수료, 時間制 勞動 등은 兼業收入에 기타 서비스收入은 勞賃收入에 포함시키고 있다.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事業以外 收入 항목에 있어서는 勞賃收入이나 財產的 收入 항목에는 臺灣만이 房稅를 포함시키고, 그 이외는 3국간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被贈補助 收入과 其他 收入은 韓國과 臺灣은 事業以外 收入에 포

表 4 事業以外 收入 構成項目의 比較

項目		韓國	日本	臺灣	備考
勞賃收入	農業勞賃	○	○	○	臺灣은 酬勞收入으로 通稱하고 있음
	林業勞賃 1)	○	○	○	
	其他勞賃	○	○	○	
	俸給및手當	○	○	○	
財產收入	農地賃貸料	○	○	○	
	其他賃貸料	○	○	○	
	房賃	—	—	○	
	配當利子	○		○	
被贈補助	謝禮金	○	—2)	○	臺灣은 補助收入으로 通稱하고 있음
	送金補助	○	—2)	○3)	
	被贈	○	—2)	○3)	
其他	家事收入	○	—	○	臺灣은 送金補助被贈包含
	其他收入	○			

1) 韓國과 臺灣의 경우에는 항목구분은 없으나 포함되고는 있는 것으로 생각됨.
2) 日本의 경우 被贈補助 收入은 除外시키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項目은 다음과 같음.
短期出他 勞賃(6개월미만), 長期出他勞賃(6개월~1년미만) 出他家族送金, 被贈收入, 恩給年金과 救護扶助等의 給付金, 農林業 補助金, 農業共劑金, 家事收入等.
3) 臺灣의 경우 被贈補助收入中 정부나 단체의 장려 및 보조성 수입을 포함시키고 送金補助나 被贈收入은 受贈이라 하여 其他收入에 포함시키고 있음.

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日本은 移轉的 所得으로 간주하여 農外所得에 포함시키지 않고 總農家所得 가운데 포함시키고 있다. 經濟活動 原則에서 볼 때, 被贈補助나 財産的 利用收入은 非經濟活動에 의해 얻어진 收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事業以外 항목중 移轉的 所得의 성격을 띈 항목은 農外所得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 韓, 日, 臺灣 間의 農外所得 計算方法이나 構成項目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國際 間 農外所得의 비교는 한계가 있으며, 우리 나라 農外所得 統計가 日本이나 臺灣에 비하여 過大評價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韓, 日, 臺灣 間의 農外所得 構造를 分析한다는 것은 그만큼 過大, 過少 評價될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정확한 數値間의 비교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3國 間의 農外所得構造와 成長을 둘러싼 일반적 推移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國家의 農外所得構造와 成長過程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Ⅲ. 農外所得構造와 成長分析

1. 農外所得 構造

우리 나라 全國 平均 戶當 農外所得은 1978년 현재 農家所得의 28.1%에 해당하는 528,526원으로, 農業構造가 비슷한 日本의 73.1%, 臺灣의 63%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편이다.

規模別로는 0.5ha 이하의 零細農의 경우에만 61.4%의 비교적 높은 수준의 農外所得을 얻고 있을 뿐 中小農의 農外所得 依存度는 20~30여%에 불과하다. 2ha 이상 大農의 農外所得 의존도는 극히 미미하여 거의 農家所得의 전부를 農業所得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日本의 경우에는, 零細小農은 農家所得의 80~94%를 農外所得에 의존하고 있으며, 2ha 이상의 大農도 農家所得의 30%를 農外所得에 의존하고 있다. 臺灣의 경우에는 零細小農의 경우 農家所得의 60~70%를 農外所得에 의존하고 있으며, 2ha 이상의 大農의 경우에도 所得의 34.5%를 農外所得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大農의 경우에는 日本보다 더 높은 農外所得 比重을 보이고 있다〈表 5〉.

韓, 日, 臺灣 모두 耕地規模가 적은 農家일수록 農外所得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耕地規模가 적은 農家들은 農業所得의 비중이 점차 낮아져서 農業이 副業의 위치로 低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적은 耕地規模를 가지고 農業所得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生産性의 提高 또한 완만한데 비하여 非農業部門으로부터 구매하는 農業資材와 生必品의 구입費用 부담은 급속히 늘어간다. 따라서 부족되는 각종 費用을 보충하기 위한 農外就業機會 要求 증대가 農外所得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가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經濟發展에 따라 就業機會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農外所得 機會가 증대하기 때문에 經濟發展 정도와 零細小農의 農外所得 依存度는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韓, 日, 臺灣 間 農外所得 의존도를 보면 經濟發展 정도가 앞선 日本이 가장 높고 다음이 臺灣, 우리 나라의 順이다.

農外所得은 耕地規模의 차이에 따른 所得格差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日本의 예를 들면 1978년 零細小農의 農業所得(232.7千圓)과 中農(1633.8千圓)間의 農業所得의 차이는 약 7.5倍나 되었다. 그러나 小農의 農外所得 增大로

表 5 **農外所得 依存度 比較**, 1978

單位 : 원, 圓, 元

國別	規模別	0.5ha 이하 (A)	0.5~1.0 ha (B)	1.0~1.5 ha (C)	1.5~2.0 ha (D)	2.0ha* 이상 (E)	平均	規模別 所得의 相對隔差 比較(%) A/D	B/D	C/D	E/D
韓國	農家所得	1,126.254	1,600,479	2,115,989	2,677,676	3,627,848	1,884,194	42.06	59.78	79.03	135.49
	農外所得	691,680	512,772	437,797	511,071	46,968	528,526				
	農外 所得率	61.42	32.04	20.69	19.09	1.30	28.05				
日本	農家所得	4,019,000	4,135,300	4,213,300	4,388,800	4,945,300	4,208,900	91.58	94.23	96.01	112.68
	農外所得	3,786,300	3,337,900	2,579,500	2,126,600	1,452,800	3,074,400				
	農外 所得率	94,21	80.72	61.23	48.46	29.38	73.05				
臺灣	農家所得	174,760	163,906	182,834	234,545	258,897	—	74.51	69.89	77.96	110.39
	農外所得	122,639	97,996	90,280	96,520	89,383	—				
	農外 所得率	70.18	59.79	49.38	41.16	34.53	63.03				

* 日本의 경우 2.0~3.0ha 기준임.

資料 : 韓國 : 「農家經濟調査結果報告」, 1979.
日本 : 「農家經濟調査報告」, 1979.
臺灣 : 「農家記帳調査報告」, 「家庭收支調査報告」, 1978.

전체 農家所得 間의 격차는 대폭 축소되어 中農의 91.6%에 이르러 所得分配의 平準化를 이루고 있다.

韓, 日, 臺灣 間 全國 平均 戶當所得을 耕地模規別로 所得格差를 비교한 것이 〈表 5〉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中農(1.5~2.0ha規模)을 기준으로 規模別 相對所得 比率을 보면 零細農은 中農의 42.1%에 불과하며, 小農은 60%, 大農은 135.5%로 農家間에 심한 所得格差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하여 日本은 中農에 대한 零細農의 所得比率은 91.6%로 높고, 小農은 94.2%, 大農 112.7%로 農家階層 間에 所得의 平準化를 이루고 있다. 臺灣의 경우에는 각각 74.5%, 70%, 110%로 日本보다 심하지만 우리 나라보다 안정된 所得分配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더 나아가 農家와 非農家 間 所得의 格差를 줄이는 요인으로 발전하여 전체 國民所得分配의 平均化를 가져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近代化 과정에서 西歐社會와 같은 곳에서는 農業人口의 이동이 離農形態로 나타나기 때문에 農業의 經濟的 性格이 급격히 변화하지만, 東洋의 小農畓作 社會에서는 農家戶數를 그대로 유지하는 兼業化가 農家人口 移動의 기조를 이루어 農家內部의 변화만을 가져온다. 1978년 현재 日本의 農家 중 兼業農家가 차지하는 비율은 87.1%나 되며, 臺灣은 80.2%로 우리 나라의 18.4%에 비하면 월등히 높다. 兼業은 農業만으로 生計推持가 어렵기 때문에 취해지는 農民의 대응책으로 보인다. 日本과 臺灣의 農外所得 증가는 兼業化에 의한 農外就業 및 自營農外事業의 역할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兼業農의 증가는 農外所得을 증가시켜 營農機械化를 촉진시키게 됨으로써 勞動生產性을 향상시킬 可能性도 없지 않으나 長期的인 면에서 볼 때는 兼業農家의 증가는 農業生產性을 低下시킬 可能性도 많다. 非農業分野에 就業하여 높은 所得을 얻고 있는 高所得 零細農家들은 農業이 副業化됨으로써 農業生產效率을 높이는 問題보다 農外就業을 可能케 할 수 있는 農業勞動力 節減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零細하고 非能率的인 小農生產樣式을 유지시키게 되어 높은 農產物 生產費를 구조적으로 유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78년 말 현재 우리 나라의 兼業農家의 比率은 日本이나 臺灣에 비하여 매우 낮다. 그러나 政策的 관심을 모으고 있는 農村工業開發이 本格化 된다고 가정할 경우 兼業農은 급격히 증가될 전망이다. 따라서 農民의 農外所得增大 政策과 관련하여 兼業農家들의 土地 및 農業生產資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이들 농가의 農業生產性을 향상시키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5].

農外所得을 기능면에서 분류하면 兼業收入과 事業以外 收入으로 나눌 수 있으며, 事業以外 收入은 勞賃·俸給收入, 財產的 收入, 被贈補助收入, 其他 收入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農外所得 항목별 收入源을 비교한 것이 〈表 6〉이다.

우리 나라 農外所得 收入源別 구성을 보면 勞賃收入이 차지하는 비율이 35.1%로 가장 높다. 다음이 被贈補助 收入으로 33.7%를 차지하며 두 항목이 전체의 68.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日本의 경우는 勞賃收入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82.3%로 農外所得의 대부분을 여기에 의존하고 있다. 臺灣의 경우는, 兼業收入이 차지하는 比率이 60.4%로 가장 높고, 다음이 其他 收入으로 17.5%를 차지하고 있다. 韓, 日 두 나라에서 가장 많은 勞賃 및 俸給收入이 10%도 되지 않으며 補助收入 또한 현저히 낮다. 이는 兼業收入의 상당부분이 勞賃收入과 같은 性格을 가지는데 기인한다. 臺灣의 경우, 農村工場이나 事業體 등을 持株形式으로 農民이 소유하고 있어 農閑期에 이곳에서 일을 하고 얻는 給料나 配當을 自營에 의한 兼業收入으로 계산하고 있다. 勞賃收入이 韓國, 日本에 비해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韓國과 日本은 兼業收入의 比重이 작고 事業以外 收入이 80~90%를 차지하는데 비하여 臺灣은 兼業收入의 比重이 월등히 높다. 세부적으로는 韓, 日, 臺灣의 農外所得 收入源間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日本, 臺灣에 비하여 被贈補助 收入이 월등히 많은 반면 日本은 勞賃·俸給 收入이 월등히 많다. 農外收入源은 農業構造의 차이에 따라 약간씩 다르겠지만 農業環境과 農村內部 構造와의 차이에 더 큰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의 경우, 經濟發展에 의한 工業化와 社會間接部門의 성장도 괄목할 만큼 성장하였고 就業機會도 상당히 증가하였지만 就業機會가 대부분 都市에 편중되어 있다. 서울, 釜山, 大邱 등 大都市를 중심으로 工場施設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直接 出退勤하여 勞賃俸給 所得을 얻지못하고 일부 家口員이 就業移出 形態로 送金補助의 農外收入을 얻고 있다.

이에 비하여 日本은 農村地域까지 각종 生產工場 및 서비스業體가 진출하고 있어 農家에서 직접 出退勤式의 就業機會를 얻고 있기 때문에, 農外所得에서 차지하는 勞賃·俸給收入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勞賃·俸給收入은 家族勞動力에 의해 얻어지는 反對給付이기 때문에 勞賃·俸給收入은 賃金水準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勞賃收入은 賃料金에 就業日數를 乘한 額數이기 때문에 賃金이 아무리 상승하더라도 就業日數가 증가하지 않으면 勞賃收入의 증가는 제약을 받게된다. 우리 나라와 같이 離農으로 빠져나간 家族이 農外就業으로 소득을 얻을지라도 이것이 바로 農家所得이 될 수 없으므로 農村賃金의 上昇이 農家의 勞賃收入 증가에 크게 기여할 수 없다. 그러나 日本과 같이 營農을 계속하면서 家口員의 일부가 兼業形態로 農外分野로 就業할 경우에는 農外就業에 따른 收入이 農家

表 6 項目別 農外所得收入 比較, 1978 平均農家

項目別	國別	韓國		日本		臺灣	
兼業收入(A)	林業및水産業	7,996千원	(1.32)	87,200千圓	(2.68)	—	千元
	大動物增殖	4,236	(0.70)	—		—	
	商工鑛業	82,213	(13.57)	252,400	(7.75)	62,212	(60.35)
	서비스業	23,977	(3.96)				
	其他	1,982	(0.33)	39,800	(1.22)		
	小計	121,341	(20.03)	379,400	(11.56)	61,212	(60.35)
事業以外收入(B)	勞賃收入	212,612	(35.09)	2,677,000	(82.28)	9,812	(9.68)
	財産收入	34,628	(5.72)	196,900	(6.05)	8,950	(8.83)
	被贈補助收入	203,977	(33.67)	—		3,684	(3.64)
	其他收入	33,338	(5.51)	—		17,773	(17.53)
	小計	484,555	(79.97)	2,873,900	(88.33)	40,219	(39.65)
計(A+B)		605,896	(100.00)	3,253,300	(100.00)	101,432	(100.00)

( )內는 %임.
資料 : 〈表 2〉와 같음.

의 農外所得으로 되기 때문에 農村賃金의 上昇이 離農形態의 경우보다 勞賃收入 증가에 월등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즉 農家의 就業形態가 離農形態냐 兼業化냐에 따라 農外所得에 미치는 영향은 큰 것이다.

우리 나라도 장기적으로는 先進國과 같이 勞賃·俸給收入 증가에 의한 農外所得 증가를 꾀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현재와 같이 離農形態의 被贈補助 收入에 의한 農外所得 증가에는 한계가 있으며 完全 離農으로 연결되어 農家所得 증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安定的 農外所得 增大를 위해서는 農外就業 收入이나 農家에서 出退勤하면서 農外就業을 擴大할 수 있는 方案이 있어야 할 것이다.

臺灣은 兼業收入에서 農外所得의 대부분을 얻고 있는데, 農産加工業을 중심으로 한 많은 工場들이 農村에 진출하고 있으며 農事철 이외에는 農家부근의 加工工場이나 政府機關 및 團體의 서비스 業體에 就業, 給料를 얻고있다. 臺灣에서는 農産物流通 販賣에서부터 農村에 진출한 주요 農産物 加工工場까지 대부분 農民들 손으로 직접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얻어지는 收入이 전체 農外所得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기타 機械化센터의 운영으로 農業機械 收入도 상당부분을 점하고 있다.

韓, 日, 臺灣 3개국의 耕地規模別 農外所得源을 비교해 보면 〈表 7〉과 같다. 우리 나라의 耕地規模別 農外所得源을 보면 耕地規模가 작은 농가에서는 兼業所得率이 높고 規模가 큰 농가로 갈수록 낮아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勞賃·俸給收入은 零細農家와 大農에서 많고 中小農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被贈補助 收入과 其他收入率은 大農으로 갈수록 많은 경향을 보였다. 이에 비하여 日本의 경우는 우리와 相反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兼業所得 比率이 耕地規模가 큰 농가일수록 높고, 반대로 勞賃俸給 所得率은 耕地規模가 적은 농가일수록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의 耕地規模가 적은 농가에서 兼業收入이 높은 것은 兼業所得源이 농가의 副業的形態를 띈 것으로 零細小農에서 높게 나타나지만 日本의 경우는 거의 主業에 가까운 형태로 資本能力이 있는 大農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表 7 耕地規模別 農外所得收入源 比較, 1978, 平均農家 單位 : 원, 圓, 元

	韓國				日本				臺灣			
	~0.5ha	0.5~1.0ha	1.5~2.0ha	2ha~	~0.5ha	0.5~1.0ha	1.5~2.0ha	2ha~	~0.5ha	0.5~1.0ha	1.5~2.0ha	2ha~
兼業收入	75,864 (10.97)	42,571 (8.31)	24,751 (4.85)	△2,064 (−0.45)	246,000 (6.50)	270,700 (8.11)	228,200 (10.73)	208,100 (14.33)	86,051 (69.52)	67,170 (67.62)	56,613 (52.90)	43,096 (45.85)
勞賃收入	331,472 (47.93)	916,766 (38.38)	176,541 (34.55)	209,303 (44.54)	3,410,100 (90.07)	2,922,600 (87,56)	1,822,100 (85.69)	1,196,700 (82.38)	11,081 (8.95)	9,648 (9.71)	6,340 (5.92)	8,414 (8.96)
財產收入	48,674 (7.04)	30,383 (5.93)	32,935 (6.45)	40,497 (8.62)	130,200 (3.44)	144,600 (4.34)	76,300 (3.59)	48,000 (3.31)	5,625 (4.54)	6,374 (6.42)	17,360 (16.22)	16,245 (17.28)
被贈補助收入	209,065 (30.23)	208,969 (40.76)	239,906 (46.95)	188,446 (40.10)	—	—	—	—	3,202 (2.59)	3,378 (3.40)	4,169 (3.90)	5,075 (5.40)
其他收入	26,606 (3.85)	34,083 (6.65)	36,938 (7.23)	33,786 (7.19)	—	—	—	—	17,818 (13.77)	12,758 (11.57)	22,531 (19.91)	21,157 (17.56)
計	691,680 (100.00)	512,772 (100.00)	511,071 (100.00)	469,968 (100.00)	3,786,300 (100.00)	3,337,900 (100.00)	2,126,600 (100.00)	1,452,800 (100.00)	123,778 (100.00)	99,328 (100.00)	107,013 (100.00)	93,897 (100.00)

註 *臺灣은 農外收入源別 額數임.
( )內는 %임.
資料 : 〈表 2〉와 같음.

즉 大農으로 갈수록 主業的 兼業農家로 발전하는 한편 零細小農으로 갈수록 勞賃俸給에 의한 家族勞動力 보수 收入으로 발전하고 있다.

臺灣의 경우는 우리 나라와 약간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耕地規模가 많은 농가로 갈수록 兼業收入이 감소하고 있다. 臺灣은 耕地規模가 큰 농가로 갈수록 非農業部門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며 小農은 自家農業에 종사하고 남는 시간을 兼業에 종사하기 때문에 農業生產爲主의 兼業이 많은 이유이다. 財產的收入과 補助收入 또한 耕地規模가 큰 농가로 갈수록 構成比가 증가하고 있다. 規模가 큰 농가에서 農地賃貸借에 의한 收入이 많은 결과이며, 우리 나라와 달리 耕地規模가 큰 농가에서는 政府支援에 의한 補助收入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 農外所得 成長分析

우리 나라 農家所得 가운데 農外所得이 차지하는 비율은 〈表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5년의 20.9%에서 1978년에는 28.1%로 증가하였다. 零細農과 小農의 農外所得 依存率은 1978년의 경우 각각 56%, 32%를 차지했다. 이에 비하여 日本은 1965년의 53.2%에서 1978년에는 73.1%로 農外所得 의존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1978년 0.5ha 이하 零細農의 農外所得 의존율은 전체 農家所得의 94.2%를, 小農은 80.7%를 차지하여, 우리 나라 小農의 증가율이 全國平均과 비슷한데 비하여 日本은 全國 平均 增加率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臺灣은 1965년의 29.1%에서 1978년에는 63.1%로 증가하여 同期間 中 3개국 가운데 가장 빠른 成長을 보였다. 零細農의 경우에도 1965년의 35.3%에서 1978년에는 70.4%로 크게 伸張되었으며, 小農 또한 24.8%에서 59.8%로 2倍 이상 伸張되었다.

1978년 현재 우리 나라의 農外所得 依存率은 1965년 臺灣 水準(29.1%) 보다 낮으며, 1978년 臺灣의 農外所得 依存率은 1969년 日本 水準과 비슷하다.

그 동안 우리 나라는 二重穀價制 등 높은 農產物價格을 유지해 줌으로써 農家所得에서 農業所得이 차지하는 비중은 월등이 높았다. 그러나 1970년 중반 이후부터 우리 經濟의 高度成長으로 인한 就業機會의 擴大로 農村勞動力의 移出 등 農家經濟 내부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상대적인 農外所得의 증가가 현저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表 8 農外所得 依存度 比較

單位 : %

	韓國			日本			臺灣		
	全國平均	0.5ha以下	0.5~1.0ha	全國平均	0.5ha以下	0.5~1.0ha	全國平均	0.5ha以下	0.5~1.0ha
1965	20.9	41.15	21.45	53.2	63.61	56.09	29.1	35.29	24.80
1970	24.2	49.16	25.90	65.0	91.02	71.05	51.3	51.86	35.23
1972	17.7	42.66	20.35	69.7	91.90	73.25	57.7	62.98	50.89
1974	19.7	40.30	21.01	70.4	92.10	74.72	51.9	64.72	44.17
1976	20.3	43.46	22.14	69.8	91.88	74.11	58.6	70.37	57.86
1977	27.7	58.21	30.45	72.0	93.91	79.23	59.7	69.85	59.71
1978	28.1	56.41	32.04	73.1	94.21	80.72	63.1	70.35	59.79

資料 ; 〈表 2〉와 같음.

이와 반대로 臺灣의 경우에는 1960년대 초부터의 工業化過程에서 農業을 原料基盤으로 하는 工業育成政策을 추진함으로써 農外所得에 의한 農家所得增大의 기반이 갖추어져 있었다. 우리나라 보다 10여년 앞서 가져온 급속한 經濟發展과 商工業의 發展으로 1960년대 후반부터 많은 就業機會를 제공하여 70년대 이후 계속적인 農外所得을 올릴 수 있었다. 1978년부터는 6개년 農業發展計劃을 세우고 發展된 工業으로 農業을 육성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 초부터 육성한 農村 農產加工 工場의 건설과 流通 서비스業의 擴張으로 技術集積이 없는 농민이라도 就業이 가능한 분야를 대폭 확장함으로써 農外所得 機會가 확장되었고, 특히 零細小農의 農外所得 進出 機會가 대폭 伸張되었다.

日本의 경우는, 1950년대의 戰後 食糧不足에 대처하기 위한 農產物價格 保證制 실시로 農家의 農業所得 의존율은 꽤 높았지만 50년대 중반 韓國戰 需要로 인한 工業化의 급진전으로 많은 농민에게 就業機會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후 經濟開發의 加速化에서 빚어진 土地需要의 증가와 勞動力不足, 勞賃上昇으로 많은 工場들이 農村으로 진출함에 따라, 日本 農業은 出勤農業 형태로 바뀌었고 農家 農外所得이 크게 증대하게 된 결과가 되었다.

韓, 日, 臺灣 3개국의 년대별 農外收入源을 비교한 것이〈表 9〉이다.

우리 나라의 農外收入源 가운데 兼業收入은 其他收入에 비하여 1960년대 후반에 상대적으로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나, 1975년 이후는 그의 比重이 상대적로 낮아지고 勞賃收入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勞賃收入의 경우에는 1965년에 25.2%이었으나 1970년에는 39.9%, 1978년에는 40.2%로 1960년 보다는 1970년대에 급격에 증가되고 있으나 1970년대에 있어는 그 증가폭이 매우 적다. 이는 1970년대에 도시화 공업화가 촉진되어 농촌에서도 農外就業機會가 증가되고는 있지만, 農民들의 農外就業이 不安定하게 이루어진데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농민의 工場 등 農外就業은 이들이 전문적인 기술도 없고 취업가능 인력도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적인 취업보다는 임시나 단기적인 단순노동의 취업이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6]. 勞賃收入의 不規則的인 추세에 비하여 事業以外 收入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勞賃收入 이외의 被贈補助收入이 1970년대 이래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日本의 경우에는 우리 나라와 같

表 9 年度別 農外所得源 比較

單位 : 원, 圓, 元

	韓國			日本			臺灣*		
	兼業所得	事業以外 所得		兼業所得	事業以外 所得		兼業收入	事業以外 所得	
		計	그중勞賃收入		計	그중勞賃收入		計	그중勞賃收入
1965	3,900 (16.66)	19,500 (83.34)	5,900 (25.21)	97,500 (21.51)	355,600 (78.48)	326,400 (72.03)	3,391.3 (38.36)	5,447.7 (61.44)	2,303.4 (26.06)
1970	9,599 (15.54)	52,168 (84.46)	24,660 (39.92)	160,100 (13.67)	1,090,900 (86.33)	763,400 (65.19)	5,814.1 (38.50)	9,286.2 (61.50)	4,855.2 (32.15)
1972	14,529 (19.12)	61,484 (80.89)	30,799 (40.51)	136,700 (10.57)	1,156,500 (89.42)	1,118,800 (86.51)	19,655.1 (62.24)	11,920.7 (38.76)	4,417.0 (13.99)
1974	22,234 (16.78)	110,315 (82.23)	56,635 (42.72)	—	—	—	33,710.0 (63.26)	19,575.7 (36.74)	6,780.2 (12.72)
1976	28,523 (12.14)	206,538 (87.87)	102,244 (43.49)	210,800 (8.23)	2,349,500 (91.77)	2,228,600 (87.04)	46,560.5 (60.73)	30,107.5 (39.27)	7,038.1 (9.18)
1977	39,371 (9.93)	357,302 (90.08)	159,515 (40.21)	234,900 (8.20)	2,629,700 (91.80)	2,501,400 (87.32)	50,815.8 (57.95)	36,879.2 (42.05)	8,090.1 (9.22)
1978	43,971 (8.32)	484,555 (91.68)	212,612 (40.22)	244,000 (7.93)	2,830,400 (92.07)	2,677,000 (87.08)	61,212.0 (60.35)	40,219.0 (39.65)	9,812.0 (9.68)

( )內는 農外所得(戶當)을 100으로 한 構成比임.
* 臺灣은 收入源別 統計値임.
資料 ; 〈表 2〉와 같음.

이 兼業收入의 비중이 1965년의 21.5%에서 1978년에는 7.9%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勞賃收入은 1972년 이후 農外收入의 85%이상 수준으로 漸增하고 있다. 事業以外 所得은 勞賃收入 증가 추세와 비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事業以外 收入은 勞賃收入의 증가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韓, 日 두 나라의 兼業收入 증가 추이와 事業以外收入 증가 추이는 아주 비슷한데, 勞賃收入은 構成比重에 있어 日本의 1/2에 지나지 않는다. 日本의 勞賃收入 추세는 안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日本은 이미 70년대 초부터 農家의 農外就業이 안정된 기조위에서 큰 변동없이 成長해 왔다고 볼 수 있다.

臺灣의 경우는 韓, 日 두 나라와는 정반대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臺灣의 경우 1965년 38.4%에 불과했던 兼業收入 비중이 1978년에는 60.4%로 증가하여 약 2倍의 상대적 成長을 가지고 왔지만 1972년 이후 不規則的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하여 勞賃收入은 1965년 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976년부터 踏步狀態에 있다. 事業以外 收入 추세는 韓國, 日本과 같이 勞賃收入 比重의 증감에 따라 변화되지 않고 兼業收入의 增減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1965년의 경우 事業以外所得 중 勞賃收入, 財産利用 收入, 其他 收入의 構成比가 각각 18.9%, 26.4%, 29.7%로 其他 收入과 財産收入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러한 추세는 1970년까지 거의 같은 추세를 보여 勞賃收入의 역할은 미미하다. 특히 土地의 賃貸料 등 財産收入의 比重이 19%를 점하였던 農外所得 構造가 1970년에는 15.5%로 감소하였고, 1972년에는 9.8%, 1975년에는 8.8%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와 동시에 兼業收入이 1970년 38.5%에서 1972년 62.2%로 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으며 계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兼業收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 것은 그동안 耕地規模가 넓은 大農들이 土地賃貸에 의한 많은 財産收入을 올려왔으나 臺灣에서는 耕者有田 原則에 의한 土地改革

과 일정 규모 이상의 農地所有禁止 조치가 1970년 이후 滿期 완료됨으로써, 大規模 農家가 土地를 팔고 兼業化의 길로 나가게 되면서 兼業收入의 증가로 나타났다. 현재에도 臺灣에서는 農地의 賃貸借를 허용하여 兼業化를 유도하고 있으며, 農業機械化를 적극 추진하는 등 兼業收入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日本과 달리 勞賃收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勞賃收入의 絶對額은 증가하고 있지만 農業外의 經商工業과 서비스業 분야에 농민들이 진출하여 얻어지는 所得과 給料, 수수료, 農機械利用 및 畜力收入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기 때문이다.

즉 日本의 農家가 出退勤型의 俸給收入에 의존하는 農外所得의 成長을 가져 왔다면, 臺灣 農家는 都市化 과정의 自營形態의 經商工·서비스業 분야로 진출하여 主業化함으로써 많은 農外所得 成長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Ⅳ. 結　　論

農外所得에 관한 많은 硏究에서와 같이 韓國, 日本, 臺灣 모두 耕地規模가 적은 계층으로 갈수록 農外所得 의존도는 높아지고 耕地規模가 많은 계층으로 갈수록 그의 의존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農外所得의 증가는 耕地規模의 차이에 따른 所得格差를 완화해 주고 所得分配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零細小農의 農外所得이 증대되면 될수록 전체 農家 間의 所得의 平準化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다. 日本의 경우 零細農의 農家所得이 中農農家所得의 91.6%나 되어 韓, 日, 臺灣 중 가장 所得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었다.

農外收入源에도 3국 間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 우리 나라는 被贈補助收入과 勞賃收入에 農外收入의 대부분을 얻고 있는데 비하여 日本은 勞賃俸給 收入에, 臺灣은 兼業收入에 의존하는 構造的인 차이가 있었다. 이는 우리 나라의 주요 就業地가 大都市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일부 家口員이 농가를 이출한 형태에서 送金補助收入이 많은 반면, 日本은 農家에서 직접 出退勤式의 勞賃·俸給收入이 많기 때문이었다. 家族이 農外就業으로 收入을 얻을지라도 農家所得이 될 수 없기 때문에 離出形態의 被贈補助收入에 의한 農外所得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兼業爲主의 직접 出退勤形式의 所得機會를 넓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農村後繼者 문제나 農業勞動力 확보면에서도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臺灣의 경우에는 農村에 진출한 주요 農産物 加工工場이나 農産物 流通 販賣部門까지 대부분 농민들 손으로 직접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소득에서 兼業收入의 비중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土地改革의 영향과 機械化의 促進 등으로 많은 土地所有者들이 兼業化함으로써 農外所得 증대에 공헌한 것으로 보인다.

韓, 日, 臺灣 間의 農外所得을 비교하는 데는 각국의 農外所得 計算方法과 構成項目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國際間 農外所得에 대한 現狀的비교에는 주의를 要한다. 우리 나라의 農外所得 統計는 日本, 臺灣에 비하여 過大評價될 가능성이 높다.

農外所得 構造와 成長은 農業與件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를 보이겠지만 무엇보다 國家政策 여하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와 같이 都·農間 또는 農家間 所得格差가 확대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균형있는 所得分配와 成長을 위해서도 이에 대한 政策的

支援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註 1. 1978년 말 현재 韓, 日, 臺灣 間의 農業 主要指標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韓 國	日 本	臺 灣
戶當耕地面積(ha)	1.0	1.15	0.86
零細小農比率(%)	64.3	57.3	71.4

2. 中國이라함은 中華民國 臺灣省을 말함.
3. 臺灣 農外所得 統計資料는 다음과 같고, 國際間 比較에는 家庭收支調査報告를 耕地規模別 資料利用은 農家記帳調査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家庭收支調査報告가 全國平均農家 資料만 發表하고 있기 때문임.

臺灣 農外所得統計資料別 差異

區 分	調査機關	標本規模	耕地面積	發表方法	農外所得率(1978)
農外記帳報告	農林廳	490戶	ha 1.37	耕地規模別 農業地域別	50.7%
家庭收支調査報告	主計處	2,674戶	—	全國平均 農 家	63.03%

4. 臺灣의 農外收入源別 項目內容(非農事收入)
   ① 財產利用收入 : 土地賃貸料, 집세, 貸付利子, 家畜賃貸收入等.
   ② 勞賃收入 : 雇傭, 短期雇傭에 依한 賃金, 수수료收入.
   ③ 兼業收入 : 商業, 工鑛業, 露店, 醫藥局의 自營 또는 同事業을 자영하면서 타농가에 임시 또는 수시로 고용되어 지급 받는 수고료, 수수료, 시간제 아르바이트 급료.
   ④ 其他收入 : 被贈과 關聯된 一切收入, 草木灰, 인분뇨 및 천연채집 생산수입 등, 그외 낡은 잡지, 신문지의 판매수입.
   ⑤ 補助收入 : 농가가 각급기관 및 단체로부터 장려 또는 보조성의 수입.
5. 일본의 경우 兼業農의 증가는 저소득 영세 소농가들의 農外所得을 증가시켜 農家間 所得隔差를 縮少시키고 농업기계화의 보급을 촉진시켰으나, 이들 농가의 農業生產性問題로 新農業構造 改善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최양부「농가소득증대 방향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농촌경제 2권, 1978, pp. 118-119).
6. 농민들의 農外就業可能人力의 분석을 보면 農外就業可能性이 높은 농민은 210조사농민중 5.2%, 不可能農民은 61.0% 이었으며 半熟練工 및 勞務職등 短期 및 臨時就業이 69.5%이었다. (최양부 外,「농외소득과 농촌공업개발(요약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78, p. 88, p. 111).

參 考 文 獻

姜奉淳, 文八龍, 1977,「農家所得 決定要因分析」, KDI硏究調査報告, 第77-9卷.

農業經營硏究所, 1972,「農外所得 決定要因의 巨視的分析」.

農水產部, 1970,「農家經濟調査報告」, 1966～1980.「農業센서스」, p. 11.

崔洋夫, 1978, "農家所得成長의 問題와 政策課題,"「轉換期의 韓國農業」, 韓國農村經濟硏究院, 硏究叢書 1.

農林水產省,「農家經濟調査報告」, 1966～1980.

石橋俊治, 御園喜博, 1977,「兼業農業の 構造」, 東京大學校出版會.

加藤讓, 1976,「現代 日本 農業の 新展開」, 御茶の水書房.

川野重任, 1970,「日本農業と經濟發展」, 東京大學校出版會.

吉田寬一, 1975,「高度經濟成長と 地域の 農業構造」, 農山漁村文化協會.

臺灣省農林廳,「臺灣農家記帳報告」, 1965～1978.

臺灣省農林廳, 1975,「農業普査報告」.

中華民國主計處, 1978,「臺灣家庭收支調査報告」.

郭義忠, 1976,「臺灣農家農業外所得之硏究」, 中興大農經系 農復會 合作硏究報告書.

雷秉章, 1975,「臺灣農家所得結構變動之硏究」, 臺銀季刊 第25卷 2期.

李登輝, 1975,「臺灣現階段的農家所得」, 農業經濟論文專集 4, 中國農村經濟學會.

蕭景楷, 1975,「臺灣農家所得之變動及影響因素之分析」, 中興大學 農村經濟硏究所.

陳月娥, 1978,「臺灣農家經濟」, 三十年來之臺灣農業經濟, pp. 185～211, 農復會.

會捷新, 1976,「臺灣農業經濟構遞變之硏究」, 臺銀季刊 第27卷 3期.